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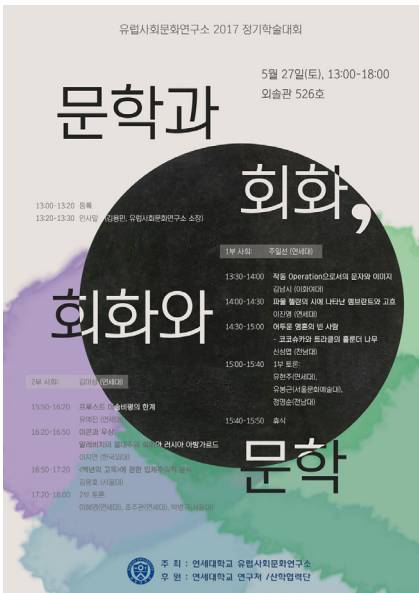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회 | 국제학술회 〈중국어문학 연구 및 중국어교육 국제 학술교류〉



본 연구원은 2017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장쑤 성 쑤저우 시에서 학술대회 〈중국어문학 연구 및 중국어교육 국제 학술교류〉를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교육학회’와 중국의 ‘장쑤사범대 언어과학·예술대학’, ‘언어능력협동창신센터’, ‘『언어과학』 편집부’, ‘난통대학 문과대학’ 등 7개 단체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중국 문학과 문자를 바탕으로 한 ‘문화연구’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발표가 있었으며,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 학술회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문학과 회화, 회화와 문학〉



본 연구원 소속 유럽사회문화연구소는 2017년 5월 27일(토) 외솔관 526호에서 2017 정기학술회 〈문학과 회화, 회화와 문학〉을 개최하였다.

1부 : 사회 주일선(연세대)

- 김남시(이화여대) : 작동 Operation으로서의 문자와 이미지
 - 이진영(연세대) : 파울 첼란의 시에 나타난 렘브란트와 고흐
 - 신성엽(전남대) : 어두운 영혼의 빈 사람 - 코코슈카와 트라클의 홀론더 나무
- 토론 : 유현주(연세대), 유봉근(서울문화예술대), 정명순(전남대)

2부 : 사회 김미성(연세대)

- 유예진(연세대) : 프루스트 미술비평의 한계
 - 이지연(한국외대) : 이콘과 우상 -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와 러시아 아방가르드
 - 김용호(서울대) : 〈백년의 고독〉에 관한 입체주의적 분석
- 토론 : 이해영(연세대), 조주관(연세대), 박병규(서울대)

■ 대중강좌 | 철학연구소, 〈서산철학강좌〉



본 연구원 소속 철학연구소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서산철학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17학년도 1학기에는 〈철학의 고전을 찾아서 Ⅲ〉라는 주제로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 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36회 (5월 11일)

김도일(성균관대) : ‘맹자’의 용기

137회 (5월 18일)

나우권(고려대) : ‘노자’의 무위와 자연

138회 (5월 25일)

박재현(동명대) : ‘선문염송’과 불립문자의 텍스트성

139회 (6월 1일)

도현철(연세대) : 특별강연 〈서산 정석해의 삶과 사상〉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지 |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인문과학』 제109집 간행

본 연구원은 2017년 4월 30일에 『인문과학』 제109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8편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 박진영(연세대) : 출판인 송완식과 동양대학당
- 엄순천(성공회대) : 고조선 지명과 통구스(어윅키) 지명 및 어휘 비교
- 이영월(경희대) : 인터넷 통신 언어 ‘牛N’ 구문 기제 형성 연구
- 유현주(연세대) : 도시예술로서의 미디어 파사드 -문자, 이미지, 맵핑, 혼합현실-
- 김미성(연세대) : 19세기 전반 파리의 출판문화 -소설의 승리와 문학의 상업화-
- 홍용진(서울시립대) : 문화혁신과 정치수사
-14세기 전반기 프랑스의 정치 이미지들을 중심으로-
- 곽민석(강원대) : 레이몽 크노 Queneau-울리포 OuLiPo 그룹과 프랑스 현대 시학
- 최진석(이화여대) : 아카데미의 외부의 아카데미
-19세기 역사철학 논쟁에 비친 러시아 지식장의 문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인문과학』은 매년 4월, 8월, 12월에 간행되며, 4월에는 문자문화 전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문자특집호’로 발행하고 있다. 『인문과학』에 게재된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inmun.yonsei.ac.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학술지 |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인문과학』 제110집 간행

본 연구원은 2017년 8월 31일에 『인문과학』 제110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6편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 김미지 : 『한성순보』와 중국 개항장 신문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이영섭, 안남일 : 中國 古典의 상호텍스트성 試論
- 윤창준 : 신조어 의미 분석을 통한 80后 문화 양상 고찰
- 조태섭 : 제주 광지 사람들의 동물 이용에 대하여
- 김혜진 : 아테네의 공공 기록 속 문자와 형상
-고전기 아테네의 기록 부조(document reliefs)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정민 : 13세기 소금의 전략적 운영과 장 드 샬롱 (Jean de Châlon)백의 영주권 확장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인문과학』은 매년 4월, 8월, 12월에 간행되며, 4월에는 문자문화 전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문자특집호’로 발행하고 있다. 『인문과학』에 게재된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inmun.yonsei.ac.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지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학술지『유럽사회문화』 제18호 간행



본 연구원 소속 유럽사회문화연구소는 2017년 6월 30일 『유럽사회문화』 제18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 정용숙(중앙대) : 가족임금에서 사회정책으로:
아데나워 정부의 아동수당 입법과 가톨릭 가족정책 (1949-1964)
- 최경은(연세대) : 종교개혁기의 비텐베르크- 인쇄문화를 중심으로
- 김미성(연세대) : 문학과 저널리즘, 그리고 1830년대 파리의 출판문화
- 박선아(연세대) : 유르스나르의 “동양이야기들”에 나타난 왕포와
코르넬리우스 베르그의 예술관 비교
- 조성애(연세대) : 에밀 졸라의 “대지La Terre”에 나타난 시간성의 대립 : 장과 라 그랑드
- 진인혜(목원대) : 타하르 자우트의 “감시자들”에 나타난 희생양 메커니즘
- 이경희(연세대) : 데카르트의 도덕론에서 ‘의지박약’과 ‘덕’의 문제
-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 : L’unité terminologique : entre mot simple et chaîne
signifiante - à propos de l’unité phraséologiqu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de
la médecine
- 남혜현(연세대) : 차용어에 대한 러시아의 언어 순수주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를 중심으로
- 이문영(서울) : 역전된 소수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사회의 러시아인 디아스포라 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유럽사회문화』에 게재된 각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ieurope>)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학술대회 | 연세대 인문학연구원·게이오대 문학부 공동학술대회



2017년 8월 1일(화) 본 사업단은 게이오대학교 문학부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게이오대학교 미타캠퍼스 북관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동서양의 서적사>라는 주제 아래 총 4개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논의를 통하여 동서양의 서적, 출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양 기관의 친선과 학술교류를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부

- 최경은(연세대) : 루터 성서의 출판 역사
- 아가타 마리(게이오대) : 컴퓨터를 활용한 구텐베르크 성서 활자의 통계적 분석
- 고인덕(연세대) : 명대 말기 ‘도상의 범람’과 삽화에 대한 인식
- 요시나가 소스케(게이오대) : 현대 일본에 있어서 『삼국지연의』의 수용과 번안소설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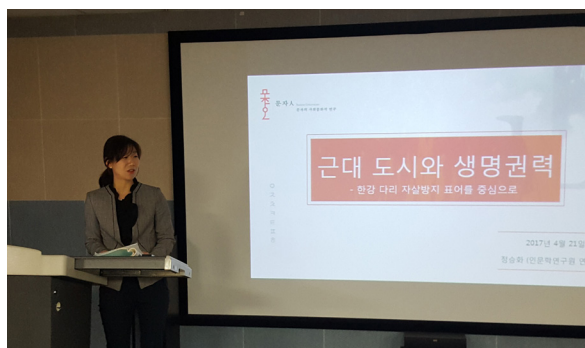
2부 교류간담회 (오후 4시 30분~6시)

■ 해외학자 초청강연 | [제26차] 요헨 알트호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에 나타나는 알파벳 문자 비교>



2017년 4월 12일(수) 본 사업단은 독일 마인츠 대학의 요헨 알트호프(Jochen Althoff)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알트호프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학 및 고대 그리스 학술 문헌의 역사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 및 교수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고전 그리스 문헌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저명한 학자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에 나타나는 알파벳 문자 비교(Comparisons with Letters of the Alphabet in Ancient Greek and Latin Philosophy)>라는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 학술대회 | <동서양 도시 공간 속의 문자>



2017년 4월 21(금) 본 사업단은 <동서양의 도시공간과 문자>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도시 공간을 매개로 공공의 기억을 구성하는 문자의 역할과 도시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자 이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유럽의 도시를 중심으로, 2부에서는 현대 서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동서양의 사례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부 도시 공간 속 문자 존재 양태의 역사적 변화와 다양성 : 사회 김미성(연세대)

- 김혜진(한국외대) : 폴리스와 공공의 기억 - 고전기 아테네의 공공 기념물 속 문자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 이해민(연세대) : 근대 초 유럽 도시 공간의 문자
- 유현주(연세대) : 현대 도시의 미디어 파사드와 문자

제2부 현대 서울의 도시 공간과 문자 : 사회 박진영(연세대)

- 연규동(연세대) : 도시 공간 속의 이방인과 문자
- 심지영(인하대) : 서울, 문자로 그려지는 도시
- 정승화(연세대) : 근대 도시와 생명권력 - 한강 다리 자살방지표어를 중심으로

■ 학술대회 | <동서양의 도시와 문자문화>



2017년 5월 26일(금) 본 사업단은 <동서양의 도시와 문자문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식민지 시기 경성과 동아시아 출판문화 속에서 국제적인 활자 네트워크의 운동성, 초창기의 국내 인쇄소를 조명한 1부 순서와 프랑스 파리, 독일 비텐베르크,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출판 도시와 출판문화를 살펴본 2부 순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동서양의 도시의 출판문화의 발달 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1부 근대 도시와 문자의 운동 : 사회 김성연(연세대)

- 박천홍(아단문고) : 동아시아 근대 도시의 활자 네트워크
 - 방효순(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 : 식민지 도시 경성의 인쇄 문화와 출판사 부설 인쇄소 - 1910년대 출판사 부설 인쇄소를 중심으로
 - 박진영(연세대) : 문자 수집가 송완식과 동양대학당의 출판 활동
- 토론 : 유석환(서울대), 장신(성균관대)

제2부 문자의 기억과 유럽의 출판 도시 : 사회 정승화(연세대)

- 김미성(연세대) : 19세기 전반 파리의 출판문화 - 소설의 승리와 문학의 상업화
 - 최경은(연세대) : 종교 개혁기의 독일 비텐베르크
 - 김정하(부산외대) :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출판 도시
- 토론 : 신성엽(전남대), 이해민(연세대)

■ 문자세미나 | [제31차] 서유리 <시대정신과 이미지의 근대>



본 사업단은 2017년 3월 24(금) 외솔관 526호에서 제31차 문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대정신과 이미지의 근대>라는 주제로 한국 근대 미술사를 연구하는 서유리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이미지를 통해 근대 주체가 성립되고 재발견되는 과정, 대중의 욕망과 시각적 정치의 역사를 재구성해 온 발표자는 이미지의 존재 방식, 이미지를 통해 실천된 시대감각과 상상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 문자세미나 | [제32차] 이현식 <도시와 문학관의 상상력>



본 사업단은 2017년 3월 7(금) 외솔관 526호에서 제32차 문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와 문학관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한국근대문학관 이현식 관장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공 문학관인 한국근대문학관의 사례를 통하여 근대 도시와 문학, 대중과 문학관의 관계, 인문학적 공간으로서 문학관의 위상과 가치, 역할과 전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문자세미나 | [제33차] 김승호 <텍스트와 이미지-예술 작품의 재문맥화>



본 사업단은 2017년 6월 9(금) 외솔관 526호에서 제33차 문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텍스트와 이미지 - 예술작품의 재문맥화>라는 주제로 동아대 미술학과에 재직 중인 김승호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예술작품의 그림 속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문자세미나 | [제34차] 이주해 <연세인문학풍의 수립과 인문과학 의 과제>



본 사업단은 2017년 8월 26(토) 외솔관 427-1호에서 제34차 문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세인문학풍의 수립과 『인문과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세대 중문과 이주해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 대중강좌 | 서울남부교도소 <제4차 수행자를 위한 인문학강좌>



본 연구원은 인문한국(HK)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수행자 집중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수행자를 위한 인문학강좌에서는 “삶의 안내자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2017년 3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회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본 강좌는 다양한 인문학 주제 및 고전 강의를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고급의 인문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수행자들이 인문학의 관점에서 자신과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문학자들의 실질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기회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3월 22일, 연규동(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 3월 23일, 조대호(연세대 철학과 교수, 인문학연구원장) : 호메로스와 일리아스
- 3월 29일, 남덕현(연세대 독문과 강사) : 히틀러의 독일이 남긴 교훈
- 4월 12일, 고인덕(연세대 중문과 강사) : 한시의 세계
- 4월 19일, 곽민석(연세대 불문과 강사) : 생활 속의 그리스 신화
- 4월 26일, 박동준(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교육기부문화
- 5월 10일, 윤혜준(연세대 영문과 교수) : 찰스 디킨스와 크리스마스 캐럴
- 5월 24일, 이진경(연세대 국문과 강사) : 말과 삶, 비폭력 화법
- 6월 7일, 최경은(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성서의 문화사
- 6월 14일, 이병철(연세대 사학과 강사) : 환경과 역사의 만남

■ 대중강좌 | 서대문도서관 인문학강좌, <연세대학교와 함께 하는 인문아카데미>



본 연구원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재능 기부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과 함께 인문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2017년 4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문자와 도시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시민들이 인문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4/6(목) 박진영 : 식민지 경성의 편집자와 활자의 시대
- 4/13(목) 고인덕 : 당시(唐詩) 속의 장안(長安)
- 4/20(목) 정승화 : “메멘토 비베레(Memento Vivere)” 삶을 기억하라—서울 한강 자살방지 표어의 역사
- 4/27(목) 문준일 : 모스크바, 도시 기억 속의 끼릴 문자 이야기
- 5/4(목) 최경은 : 종교개혁의 요람 비텐베르크
- 5/11(목) 남덕현 : 베를린, 베를린!—베를린에 새겨진 독일 역사의 기억들
- 5/18(목) 곽민석 : 기억과 상징, 그리고 퓨전의 도시 파리
- 5/25(목) 라영순 : 베네치아—맛과 문자의 도시

■ 대중강좌 | 문자아카데미 개설(2017-봄학기)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배운다

과 명	이집트 성각문자 고대 이집트의 문자와 언어	과 명	아카드 썩기문자 왕무라에 법전을 중심으로
개강	2017년 3월 9일 - 5월 18일 (10주)	개강	2017년 3월 10일 - 5월 19일 (10주)
시간	3월 9일 - 21시 (2시간)	시간	3월 10일 - 21시 (2시간)
매주	월요일	매주	화요일
장소	위당관 211호	장소	위당관 211호

신청 :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yuseimung.ac.kr>
문의 : <http://yuseimung.ac.kr>
문의 : yuseimung@gmail.com

알타이 민족의 언어

과 명	터키어	과 명	몽골어
개강	2017년 3월 22일 - 6월 7일 (10주)	개강	2017년 3월 23일 - 6월 1일 (10주)
시간	16시 - 18시 (2시간)	시간	16시 - 18시 (2시간)
매주	수요일	매주	목요일
장소	위당관 211호	장소	위당관 211호

신청 :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yuseimung.ac.kr>
문의 : <http://yuseimung.ac.kr>
문의 : yuseimung@gmail.com

고전어 고급 강좌

과 명	라틴어 IV - 고전 산문 (카리시르의 강의를 한가)	과 명	고전 그리스어 II
개강	2017년 3월 24일 - 6월 9일 (10주)	개강	2017년 3월 24일 - 6월 9일 (10주)
시간	16시 - 18시 (2시간)	시간	19시 - 21시 (2시간)
매주	수요일	매주	금요일
장소	위당관 211호	장소	위당관 211호

신청 :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yuseimung.ac.kr>
문의 : <http://yuseimung.ac.kr>
문의 : yuseimu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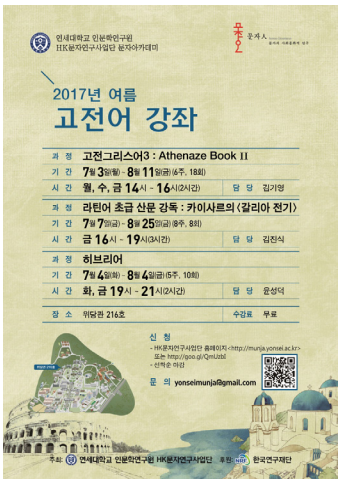
마야 문명의 이해

과 명	마야 문자와 숫자 읽기
개강	2017년 5월 17일(수) - 24일(수) 31일(수) (3회)
시간	19시 - 21시 (2시간)
장소	위당관 211호 (개강 당일)
담당	송영복

신청 :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yuseimung.ac.kr>
문의 : <http://yuseimung.ac.kr>
문의 : yuseimu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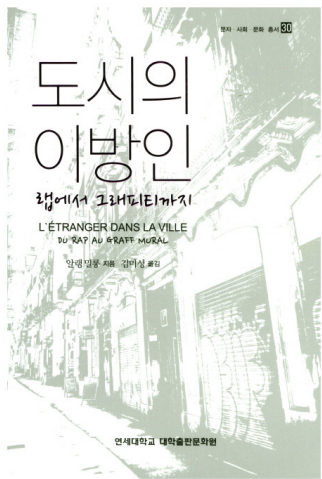
본 연구원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문자관련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17년 봄학기에는 “인류 최초의 문자를 배운다”, “알타이 민족의 언어” 그리고 “고전어 고급 강좌”, “마야 문명의 이해”의 네 가지 주제로 각각 <이집트 성각문자>와 <아카드 썩기문자>, <터키어>와 <몽골어>, <라틴어 IV-고전 산문>와 <고전 그리스어 II>, <마야 문자와 숫자 읽기>의 총 7개 강좌를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하였다.

■ 대중강좌 | 문자아카데미 개설(2017-여름학기)



본 연구원에서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쉽게 접할 수 없는 문자관련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17년 여름학기에는 “고전어 강좌”를 개설하여 <고전그리스어3>, <라틴어 초급 산문 강독>, <히브리어>의 총 3개 강좌를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하였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30, 도시의 이방인 - 랩에서 그래피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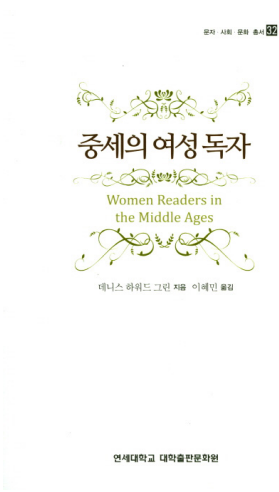
본 사업단에서는 『도시의 이방인 - 랩에서 그래피티까지』(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를 <문자·사회·문화> 총서 30으로 출간하였다. 알랭 밀롱의 저작을 본 사업단 HK연구 교수로 계시는 김미성 선생님이 번역하였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익명성을 절감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방인’인 경우는 더욱 두드러진다. 저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을 “이곳 출신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한 장소로 한정되는 것을 거부한 채 끊임없는 통과 혹은 끊임없는 움직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까닭에 영원한 방랑, 그리고 낯센이라는 감정을 구체화하는 존재인 이방인은 도시의 본질이 된다. 이방인은 우리를 매혹하는 동시에 두렵게 하며, 도시라는 공동체의 관계와 균형을 재구성하도록 요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현재 파리 10대 학 철학교수인 저자는 이 저서에서 도시를 이동성, 교환, 사회적인 상호작용, 낯센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이방인이 도시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을 기본으로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학적인 해석을 결합한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31, 한자론 - 불가피한 타자



본 사업단에서는 『한자론 - 불가피한 타자』(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를 <문자·사회·문화> 총서 31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고야스 노부쿠니의 저작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어와 한자의 관계를 통해 일본문화의 ‘내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한자를 어떻게 타자로 규정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일본인들이 다른 나라, 즉 중국의 글자라고 치부한 한자가 일본어와는 별개의 언어일까. 한자를 배제하고 일본어가 성립할 수 있을까. 고야스 노부쿠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가 한자로 표기된 문헌이라는 점과 일본인의 한문 읽기 방식 문제, 나아가 근대 일본의 국어학자의 담론과 윤리사상 등을 종횡무진으로 넘나들면서 일본문화론이 형성되는 기저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일본어라는 언어에 불가피한 존재였던 ‘한자’에 일본어의 타자라는 딱지가 붙여졌다. ‘순수한 국어’를 표방하기 위해 일본어와 한자를 분리시킨 것이다. 『한자론-불가피한 타자』는 국어학, 일본어학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시에 18세기 일본에서 국학사상이 어떻게 한자에 타자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일본의 ‘내부’를 만들어갔는지를 파고들고 있다. 일본문화의 폐쇄성의 일면을 드러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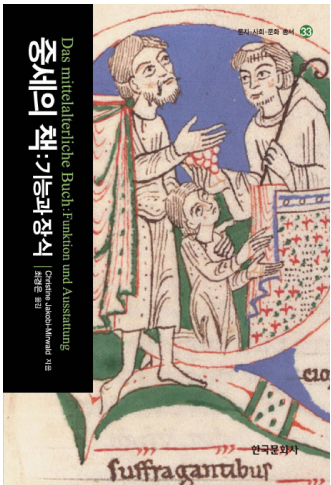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32, 중세의 여성 독자



본 사업단에서는 『중세의 여성 독자』(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7)를 <문자·사회·문화> 총서 32로 출간하였다. 데니스 하워드 그린의 저작을 본 사업단 HK교수로 계시는 이혜민 선생님이 번역하였다.

이 책은 6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 유럽의 여성 독자와 독서 관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 데니스 하워드 그린은 중세 독서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중세 여성, 더 나아가 대부분의 평신도를 문맹자로 간주했던 전통적인 관념에 정면으로 비판을 가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이 문자능력을 독점함으로써 권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중세의 성직자에게서 기인하며, 정전(canon)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다수의 중세 종교 문학을 배제한 근대의 문학 개념에 의해 강화되었고, 더 나아가 20세기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라틴어를 읽고 쓰는 성직자만을 문자능력자로 간주했다. 하지만 저자는 독서의 개념과 대상, 도구(언어)를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중세 시대에 여성 독자들이 더 많이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33, 중세의 책 - 기능과 장식



본 사업단에서는 『중세의 책 - 기능과 장식』(한국문화사, 2017)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33으로 출간하였다. 크리스티네 야코비-미르발트의 저작을 본 사업단 HK연구교수로 계시는 최경은 선생님이 번역하였다.

이 책은 5세기부터 인쇄술 발명 이전에 제작된 유럽의 책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유럽 필사본을 기능과 장식이라는 관점에서 5장으로, 각 장을 다시 7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아주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독자를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의 소주제에 따른 참고문헌과 그 소개도 간략하게 각 본문 뒤에 첨부되어 있어, 유럽 중세의 책에 대한 입문서로 적합하다. 유럽 서적삽화의 간략한 양식사, 서적 장식의 형태와 기능, 서적의 기능과 그 내용, 서적의 현대 수용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등이 소개되어 있다.